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제 1241 호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교사 10명 중 9명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재해야”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교원 99.8%는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97.1%는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생활지도’(46.5%)가 가장 커고, ‘민원’(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14.6%)이 뒤를 이었다.

자신을 감정 근로자로 인식하는 교원도 99.0%에 달했다.

“학부모가 가장 스트레스” 66%

“나는 감정노동자” 99%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 미쳐” 83%

발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교원 83.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동의’하는 비율은 55.9%로 절반을 넘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이나 경계성 장애학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원 54.5%가 ‘매우 많았다고’고 답했고, 32.3%는 ‘많다’고 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주 대상은 학부모(66.1%)가 가장 많았고, 학생(25.3%), 교장·교감(2.9%) 등이었다.

한편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잊고 싶지 않다. 실질적인 교원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교원들의 하루하루는 러시안룰렛 게임과도 같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 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민수 기자

작년 국내 총인구 5천169만명…2년 연속 줄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유소년 인구 600만명대 첫 붕괴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내 총인구가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첫 500만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주도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총인구는 5천169만2천명으로 전년(5천173만8천명)보다 4만6천명(0.1%) 감소했다.

인구 증가율은 1960년 3.0%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왔지만, 202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 센서스 집계 이

후 처음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총인구 중 내국인은 전년보다 14만8천명(0.3%) 줄어든 4천994만명을 기록하면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4천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외국인 인구는 전년보다 10만2천명(6.2%) 늘어난 175만2천명이었다. 코로나19 등 여파로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총인구 중 남자는 2천583만5천명, 여자는 2천585만7천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만2천명 더 많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인구가 2천612만4천명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수도권·중부권 인구는 전년 대비 각각 0.2%, 0.5%

증가한 반면 호남·영남권 인구는 각각 0.4%, 0.8% 감소했다.

/ 오창현 기자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

변협 선거비 등 수수자금 규명 집중…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적용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를 27일 재소환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으로, 검찰의 영장 재청구도 조의기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 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본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검찰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얻은 약 25억원 상당 이익 가운데에는 민간업자들이 박 전 특검의 지위를 보고 준 청탁성 금품이 포함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비용 등 실제로 받은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에도 집중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가족을 압수수색하고, 24일엔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노선 종점 인근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옮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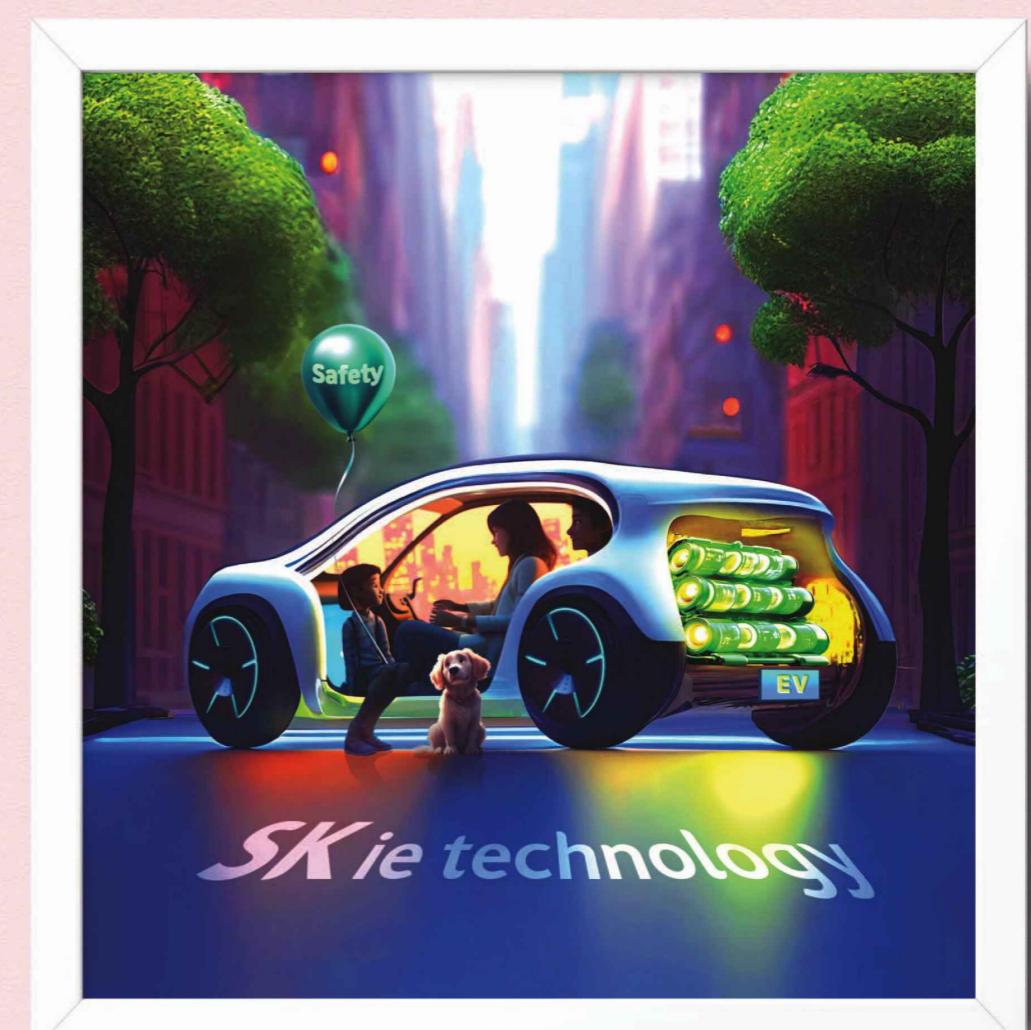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반대 입장은 명확히 하고 있어, 여야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송진영 기자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e technology

2020 부산세계박람회 월드 EXPO 2030 BUSAN SITE |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AVE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AI가 함께 그린픽처입니다]

#전기차 #부품 핵심 기술 #배터리 분리막 #안전한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명 안전한 기술이 타고 있어요

SK아이티테크놀로지의 CES* 혁신상 수상에 빛나는 배터리 분리막 기술력이 전 세계 전기차를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ES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SK아이티테크놀로지의 그린픽쳐

SK innovation SK energy SK geo centric SK on SK enmove SK incheon petrochem SK trading international SK earthon

여수상의 前회장 압수수색…宋 외과조직 수억원 불법기부 정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건…검찰, 먹사연 자금원 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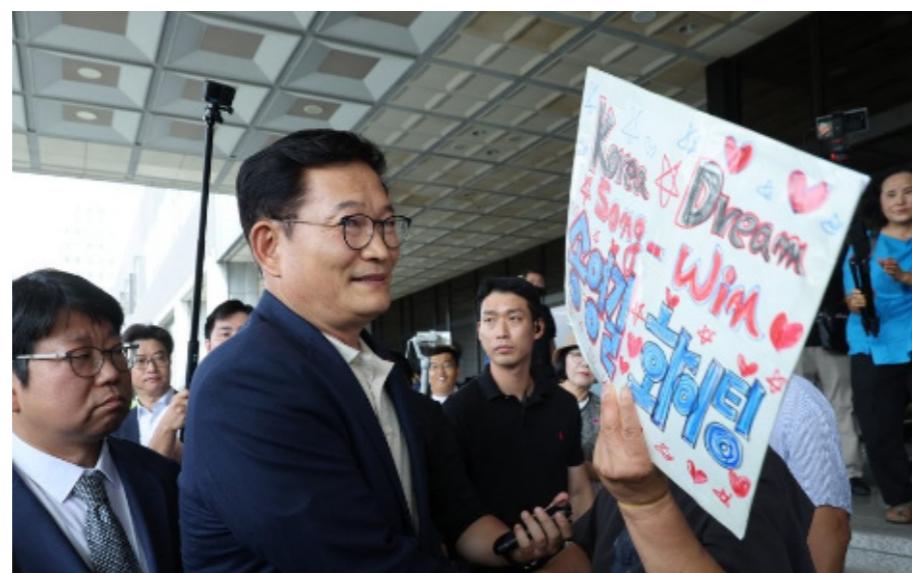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과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후원금 모금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김영철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용수씨가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등 9천240만원을 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허위 격적서를 쓴 혐의 등으로 21일 기소됐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과 단체는 모두 박 전 회장이 운영하거나 지배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수상의가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공익법인인 먹사연에 수억원을 불법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수상의는 박 전 회장 재임 시절 인 2018년 7월~2021년 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총 8천만원을 먹사연에 기부금과 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뒤 청사를 떠나며 지지자의 응원을 받고 있다.

원금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의 내부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송 전 대표의 경선 시기인 2021년 1~2월에 총 4천만원을 집중 후원했다.

이 밖에도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

는 폐기물 처리 업체와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 등을 통해 2억5천여만원을 먹사연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송영길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총 9천400만원을 당내에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먹사연이 이 자금의 조달 창구로 지목됐다.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가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등 9천240만원을 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허위 격적서를 쓴 혐의 등으로 21일 기소됐다.

이어 먹사연의 '자금원'으로 의심되는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 송 전 대표 측을 통한 불법 자금 조달 의혹의 흐름 규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압수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전망이다.

박 전 회장은 별도로 여수상의 공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 송원기 기자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갈등

“보육교사, 영아전담사 전락 안돼”

정부가 국정과제로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나눠진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합 후 두 기관의 교사 운영 체계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해 내부에 영아전담국과 유아교육국을 뒤바꾸면 유아교사는 교원양성대학 유아교육학과에서, 영아전담사는 보육 및 이동관련 학과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영아전담사’ 이원화 주장에 어린이집단체 규탄성명

27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협의회(한유협)가 보육교사를 영아전담사로 전락시키려한다며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한유협은 유치원 등의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유아교육과 교수들의 단체다.

이 단체는 한유협이 주장을 철폐하지 않으면 한유협 소속 대학의 보육실습 거부와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회는 “손혜숙 한유협 회장이 보육교사를 영아전담사로 전락시키고 교육부 내 영아전담국과 유아교육국을 뒤 관리하자고 주장했다”며 “교원양성의 계층화·차별성(화)를 통해 모든 영유아에게 불공정한 출발선을 그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측이 비판하는 것은 지난 24일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손혜숙 회장이 한 발언이다.

손 회장은 포럼에서 보육교사에 대해 ‘영아전담사’라는 표현을 쓰며 유아교사와 이원적인 양성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교육부에 영유아지원관을 신설

/ 황지민 기자

한은, 대규모 예금인출 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신속 지원

SVB 사태 계기로 대출제도 개편키로…상시대출제도 적용금리 인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 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은행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빠대로 하는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은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담보증권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금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

취급기관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은법상 금융기관 범위가 은행(및 은행지주회사)으로 한정된 데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한은법 제80조의 상황요건도 엄격하게 설정돼 이를 기관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해도 신속한 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였다.

한은은 우선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를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 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지난해 중국생명 사태,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해왔는데,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 중앙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도덕적해이 우려에 대해 “건전성 문제가 있는 기관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안 심리가 확산해 시장 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라며 “도덕적해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규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개편안에서 기존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 적격담보범위,

최대 만기 등을 조정해 중앙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준의 ‘기준금리+100bp(1bp=0.01%)’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50bp’로 낮추고, 적격담보범위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유동성 경색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11월부터 은행이 자금을 빌리고 맡기는 담보(적격담보증권) 범위를 기준의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에서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등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한은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그 동안 한시적으로 포함됐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에 더해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적격담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증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꽈지윤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지속 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위해 ESG경영을 실천합니다



ENVIRONMENT
탄소중립경영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환경경영

SOCIAL
사회책임경영

포용적 환경서비스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책임경영

GOVERNANCE
준법윤리경영

공정존중의 가치를 구현하는
준법윤리경영

오영훈 “제주2공항 고시 이후 권한행사…주민투표는 어려워”

국토부에 5가지 쟁점 사항 철저 검증 요구하기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과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항공 수요 예측 등 5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2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과 함께 제주도민의 의견을 다음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향후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습지 가치 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국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민 의견을 넘겨받으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

오 지사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도민 자기 결정권’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방안은 건의하지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않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진행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찬반 한쪽이 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찬반 갈등 양성이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공항 관련 법률이라든가 제주특별법이 규정하는 법률적 사항을 검토했을 때 단체장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제2공항 고시 이전은 단체장 역할이 적고 고시 이후에는 단체장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단체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통해 제주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한영진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 대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저희 때와 판박이”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27일 “관련 기관장들의 책임 의식이 전혀 없고, 희생자들이나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위로가 없다는 점에서 오송 참사는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에게 “(김영환) 도지사가 한 이야기를 (이태원 참사 당시에) 저희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똑

같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내가) 거기(사고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씨는 “10년이 지나도 이런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에 재발 방지는 요원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사람들은 꼭 처벌받고 그것이 경종이 돼 어떤 기관의 수장들도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 충북 지역 14개 시민단체가 참사 책임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구성한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연대의 뜻을 내비쳤다.

대책위원회는 충북도가 합동분향소 운영을 29일 오후 8시로 정한 데 대해 “유족의 뜻에 따라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진상규명 시까지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 및 시민사회의 진상조사 참여 보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오송 참사 당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국도 25호선에서 난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20대 사망자의 유족도 참석해 “사전에 충분히 사고 예방이 가능했다”며 청주시와 보은국토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 정윤호 기자



<주민등록증 사진>



<CCTV 영상 사진>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경찰 “조선, 지난달 초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도 검색어에…검색 경위 집중 추궁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구속)이 지난달 초 인터넷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조선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선이 검색한 ‘홍콩 묻지마 살인’은 지난 6월 2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2명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조선이 이 사건을 보고 지난달부터 범행을 염두에 뒀는지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고 보고 검색 경위 등을 오후 조사에서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선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신병원 탈출’, ‘정신병원 입원비용’ 등

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달에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검색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 증상이 있다고도 말했으나 의료기록 조회 결과 2013년 1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냈다. 피해자는 모두 조선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

경찰은 구속 시한 만료에 따라 조선을 2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 노승만 기자

SAMSUNG

Galaxy Z Fold5 | Z Flip5

사전판매 | 23.8.1 ~ 23.8.7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이제품은 드론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Galaxy Z Fold5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Galaxy Z Flip5은 폴더블 디스플레이입니다.
*폴더스 모드가 활성화되는 각도는 75°~115°이며, 폴더스 모드가 활성화되는 각도는 75°~115°입니다.

“드론이 배달합니다”…성남시, 전국 첫 ‘드론 배송 서비스’

내달부터 유료로 시행…탄천·구미동 물놀이장서 우선 실시



성남시 탄천 드론 배송센터

경기 성남시는 탄천 물놀이장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8월 1일부터 드론을 활용한 배송 유료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원과 하천 등에 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배송 서비스로 생활 속에서 4차 산업 기술을 체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로 드론 배송을 선보이는 곳은 8월에는 분당 탄천 내 금곡공원 임시 물놀이장과 구미동 물놀이장 등 2곳이다.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탄천 잔디공원과 구미동 반려견 놀이터 등 배달점 2곳과 종양공원 내 드론 배달거점 및 배달점 1곳을 추가 설치해 더 많은 시민이 이용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성남시의 유료 드론 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신성장 4.0 계획에 따라 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자 K-드론 배송 상용화 추진단과 연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성남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드론 배달점이 설치된 물놀이장을 포함한 성남 시내 25개 도심 물놀이장은 지난달 25일 일제히 개장해 연인원 23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쉼터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탄천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배송할 경우 산책하는 시민에게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지만 드론은 하천 위의 안전한 길을 따라 비행해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드론 전용 웹 사업자인 ‘제로랩’ 홈페이지(www.zerolap.com)를 통해 주문한 물품이 정자동 주택전시관 내 드론배달거점에 도착하면 드론에 적재한 후 물놀이장 배달점으로 제품을 가져다준다.

배달점 2~5m 상공에서 안전하게 투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전달하게 되며, 배송 소요 시간은 5~10분 이내가 될 전망이다. 주문할 수 있는 품목은 치킨, 피자, 커피 등 간식과 음료, 냉수 기저귀, 투브 등 물놀이용품과 응급처치 세트 등이다. 배송료는 3천원이다.

시는 안전성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드론 배송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 임현경 기자

기상청, 가시거리 1km 밑으로 떨어지면 도로 위험정보 제공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지날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티맵, 카카오내비 등 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통해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위험정보는 안개, 비, 눈으로 가시거리가 1km 밑으로 떨어져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운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공된

다. 위험정보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 500m 이상인 ‘관심’, 500m 미만 200m 이상인 ‘주의’, 200m 미만인 ‘위험’ 등 3단계로 나뉘어 5분 간격으로 출력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낮은 가시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연쇄 주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사전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손현수 기자

유해 봉환식서 ‘침묵’한尹대통령 “메시지 별도로 내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유해봉환 행사'에서 고 최임락 일병 유해에 참전기장을 수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별도로 자신의 메시지를 내지 말라고 사전 지시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8시 19분께 전사자 유해를 실은 공군 특별수송기 시그너스(KC-330)가 서울공항 착륙 후 완전히 멈춰 선 시각에 맞춰 도착했다.

곧이어 유가족과 함께 수송기 앞에 도

준비 과정서 “행사 자체가 메시지” 강조

열한 채 전사자들을 맞았다.

이후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 나이로 전사한 고(故) 최임락 일병 유가족 대표의 편지 낭독, 참전기장 수여, 묵념, 유해 봉송 등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윤 대통령은 줄곧 침묵을 지켰다.

통상 대통령 행사에서 각종 메시지를 공개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해 봉환이라는 행사 자체가 메시지이니 대통령 메시지를 주기로 덧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 지시였다"며 이에 따라 참모진은 별도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 정중하게 최대한 예를 갖추는 모습만으로 충분하며 그것이 본질이라는 취

지의 주문"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전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치러진 국군 유해 인수 행사 중에서 예포 발사, 대통령 주관, 참전기장 수여 등의 형식을 모두 갖춰 치러진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최 일병의 막냇동생 최용(79) 씨는 윤 대통령과 사전 환담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큰형님(故 최상락 하사)과 작은 형님(최임락 일병)이 그때 1년 사이에 하늘나리로 갔다. 8남매 중 막내인 저만 지금 남았는데 오늘 형님들을 맞이하려고 남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송원기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김기현, 野 ‘양평 땅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당 정신차리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더불어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경희 여사 일가 소유 양평 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대해 "더 이상 양평 주민들에게 어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와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지켜본 분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홍준표 윤리위 중징계’ 질문엔

“도덕성 확실히 세워나가는 당 되게 더 노력”

려움이 덕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쳐가 고속도로 계이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부안 세계잼버리 부지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걸 확인했을 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빛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한 질문에는 "윤리위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 결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도덕성을 확실히 세워나가는 그런 당이 될 수 있게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윤성 기자

민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조사 대상에 ‘尹대통령 노선변경 인지 여부·처가 개입 여부’ 명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변경된 서울-양

평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적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

점 변경 경위 ▲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적었다.

아울러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설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요구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

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애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 전원도 발의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 강숙현 기자

육군, 9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갑질’ 의혹에 “특별점검 TF 편성”



군인권센터, 육군9사단 백마회관 갑질·부조리 기자회견

육군은 9사단 지휘부의 이른바 '복지회관 갑질 및 사적 이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점검 테스크포스(TF)를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육군본부 차원에서 특별점검 TF를 편성하고 오늘부터 각급 부

대에서 운영하는 모든 복지회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진 9사단에 대해서는 "군 갑찰 인력으로 구성된 점검관들이 해당 부대의 전반적인 복지회관 실태를 확인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 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육군 내 모든 복지회관이 장병 사기와 복지 향상이라는 근본 취지에 부합되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상황을 엄정하게 인식하고, 육·해·공군의 실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 황순길 기자

육군 2·3군단, 적 소형 무인기 침투 대비 방공훈련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2군단과 3군단은 27일 강원 화천과 춘천, 양구, 속초 일대에서 적 소형 무인기 침투 대비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 소형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태세와 능력을 완비, 숙달하기 위해 실시된다.

가상 적기를 운용한 가운데 방공무기와 헬기 등 지상 및 공중 감시, 타격자산이 통합 운용된다.

훈련에 참여하는 각급 부대는 실전적인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안전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대 관계자는 "훈련에는 아군의 무인기와 헬기 등이 해당 훈련지역 상공에 투입돼 운영되는 만큼 주민들은 놀라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헬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 백경준 기자



육군 무인기

휴가의 출발지가 휴식이라면 마음의 종착지는 이곳이겠죠

휴가에는 복잡한 계획도 불안한 예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편하고 편안하며 때로는 색다른 휴식 마음이 원하는 우리 농촌에서 힐링 휴양을 보내세요

NH 농협

검찰 '50억 클럽' 과상도 아들 피의자 소환

화천대유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수수 의혹

과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지목된 과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병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법원이 병채를 통해 받은 돈에 대해 과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병채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아버지 과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으로 가장한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기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병채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 과 전 의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엄 와해 위기'에 직면하자 과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과 전 의원은 그 대가로 병채를 내세워 뇌물을 쟁겼다고 보고 지난해 과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아들 병채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과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과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과 전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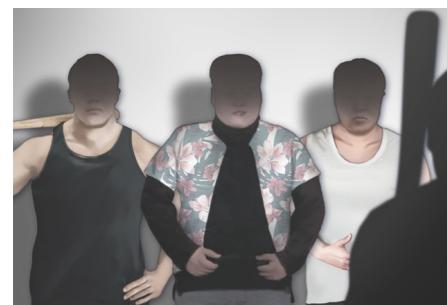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과상도 의원 아들이 2021년 10월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과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과상도가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과 전 의원 부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수사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 전 의원 소환 여부와 병채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김문성 기자

전북 경찰, 조직폭력 범죄 112명 검거…23명 구속



는 30대 이하가 69명(61.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7.7%), 50대 이상은 12명(10.7%)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익산의 한 술집에서 '왜 반말을 하냐'며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익산 지역 3개 폭력조직원 8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3월에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뒤엉켜 싸운 2개 파 폭력조직원 21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조직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폭행과 협박 등 불법행위와 대포통장 유통 등 기업형 불법행위, 이권 갈취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해왔다. 검거된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 범죄가 50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 19명(17%), 서민 갈취 14명(12.5%), 대포 물건 판매 10명(8.9%) 순이었다. 연령별로



군위군 동산계곡서 20대 3명 물에 빠져 심정지

27일 오전 9시 30분께 대구 군위군 부계면 동산계곡에서 20대 3명이 물에 빠졌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3명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이들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신고자인 20대 A씨도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송진영 기자

대한민국 디지털수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100년 미래경제를 준비합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상생프로젝트 BAY VALLEY MEGA CITY

- 충남·경기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 경제권 형성
- 대한민국 100년 미래경제를 책임질 한국형 실리콘밸리
-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 선도
- 인접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을 통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충남·경기도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 프로젝트입니다.

"악취 나고 시끄러워"...문 열어보니 시츄 50마리 방치

경북 포항의 한 빌라에 개 50마리가 방치됐다가 포항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해 구조됐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남부소방서와 포항시, 동물보호단체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난 23일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방치된 시츄 종 개 50마리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 2마리는 죽은 상태였고 48마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주민들은 최근 빌라에 한 주민이 입주한 이후 악취가 심하게 나고 개 짖는 소리로 참기 힘들 정도였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집주인은 10여일 전에 40대 세입자



방치된 시츄 구조하는 포항시동물보호센터 관계자

에게 집을 빌려준 상태였다.

시는 폐사한 2마리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부검을 맡겼고 48마리를 포항시동물보호센터로 옮겨 보호하면

서 입양 보내기로 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세입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 김유정 기자

검찰,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소환

121억 수익 추궁…대장동 수사 막바지 돌입



법정 향하는 정진상 전 실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를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직 기자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천화동인 7호를 압수수색한 지 1달여 만이다.

검찰은 배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에 출자한 경위와 수익금 121억원의 범죄수익 성격 인지 여부, 이른바 '허위 제보'의혹에 성남시 관계자가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천만원가량을 출자해 약 121억3천만원을 배당받았다. 그는 같은 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고, 대장동 민간 업자 남욱씨와 정영학씨를 김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김씨가 재직 중이던 머니투데이에 입사해 후임 법조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배씨의 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대장동 본류 수사'도 종착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진성훈 기자

등 범죄로 쟁기 범죄수익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배씨는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선을 위해 언론에 '허위제보'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이른바 '형수 육설 파일'이 공개되며 선거 판세가 이 대표가 불리해지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통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씨 등이 경쟁자인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는 의혹이다.

남씨가 당시 YTN 기자였던 배씨를 통해 '신 후보의 동생이 형수 육설 관련 불법 녹음파일을 유포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 '신 후보 동생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하자 배씨와 친분이 있는 같은 언론사 기자가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배씨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앞서 천화동인 6호 실소유 의혹으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우형씨와 함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배씨와 조씨의 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대장동 본류 수사'도 종착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진성훈 기자

충전 충남 대안민족

**대한민국 디지털수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100년 미래경제를 준비합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상생프로젝트
BAY VALLEY MEGA CITY**

- 충남·경기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 경제권 형성
- 대한민국 100년 미래경제를 책임질 한국형 실리콘밸리
-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 선도
- 인접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을 통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충남·경기도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 프로젝트입니다.

충청남도

김정은, 러 국방장관에 ICBM·신형무인기 '과시'…직접 소개해

'무장장비전시회-2023' 전시장 찾아…“제국주의자에 맞서는 투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26일 무기 전시회를 참관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무인기 등을 함께 둘러보며 강력한 군사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6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2023' 전시회장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쇼이구 장관에게 "최근 시기 조선 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기술기체들을 소개"하고 "세계적인 무장장비 발전추세와 발전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또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두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전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전승절) 행사 참석차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회에는 미국의 침단 무인기들이 글로벌로, 프레데터와 흡사한 형태의 무기들이 보였다. 또 '화성-18형' 등 각종 ICBM이 전시된 모습도 포착됐다.

통신은 국방성 주최로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이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행사는 이날 처음 공개된 것으로, 북한은 2021년에는 '국방발전전람회'

라는 명칭의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강순남 국방상이 김 위원장을 현장에서 맞았고, 김덕훈·조용원·최룡해·리병철을 비롯한 당·정부 최고위급 간부들도 참석했다. 여기에 국방성 지휘관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군정지휘관들도 자리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 군사대

표단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했다.

통신은 접견에서 "뿌리 깊은 조로(북러) 친선의 역사를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국방안전 분야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측이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계기로 심화하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신냉전' 기류에 대한 평가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제공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국방장관은 서로 선물을 교환하기도 했다.

러시아 군사대표단은 지난 25일 평양에 도착했다. / 김희찬 기자



폭스바겐이 6일(현지시간) 'IAA 모빌리티 2021'에서 처음 공개한 첫 소형 세그먼트 컨셉트 차량 ID 라이프

폭스바겐 中몰락 모면책은?

中 전기차 샤오펑 지분 인수

**7억달러 투자해 지분 5% 매입
중형 전기차 2종 공동 출시 계획**

샤오펑은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에 있어 경쟁력을 더하고, 폭스바겐은 구매력과 차종 대량 생산능력을 뒷받침하게 된다. 샤오펑은 지난해 전기차 12만대를 판매해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중 하나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중국에서 전기차 15만5천70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보다는 3분의 2가 늘어난 것 이지만, 앞서 내연기관차로 거뒀던 성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동안 폭스바겐 그룹의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의 성공은 제한적이었다.

중국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의 ID 시리즈보다 더 많은 소프트웨어와 연결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독일 dpa는 분석했다.

중국 1위 전기차업체 BYD는 물론, 테슬라까지 폭스바겐의 전기차 사업을 조역으로 보이게 했다.

/ 양승호 기자

바이든, 조용히 '푸틴 전범' 수사 협조…ICC에 증거 공유



하르키우 이지음 지역 묘지에서 러시아군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시신을 확인 중인 우크라이나 검찰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줄곧 거리를 뒤웠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딜미를 잡으려 ICC에 협조하기로 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관련 사정에 밝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부에 증거 공유를 시작이라고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며칠전 나온 이러한 지시는 "미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한다"고 NYT는 평가했다. 실제, 미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를 ICC에 제공하는데 최근까지도 강하게 반대해 왔다.

ICC 미가입국인 러시아에 대한 수사를

도울 경우 해외에서 작전을 벌이는 미국과 정보기관 종사자들 역시 ICC에서 사법 처리될 길이 열린다는 이유에서다. ICC에는 세계 120여개국이 가입돼 있지만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 정보기관들은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시설 공격 결정과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천명을 강제로 끌고간 행위 등과 관련해 상당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런 정보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 사법당국과 공유했지만, ICC에는 지금껏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흐름을 전환한 이유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 직전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서는 대통령 경호원 일부가 대통령궁을 봉쇄하고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과 가족들을 억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군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국방 및 치안 병력"이라고 밝히고 "현 정권을 끌어내리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부는 이어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면서 국가 기관 봉쇄, 국경 폐쇄를 발표했다.

니제르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1974년, 1991년, 1996년, 1999년, 2010년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쿠데타가 발발하는 등 세계에서 쿠데타가 빈번한 국가 중 하나다.

2020년 12월 니제르 역사상 최초로 평화적·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선된 바줌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인 2021년 3월 말에도 공군 장교의 쿠데타 기도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 백경준 기자

니제르 쿠데타 정국…군부 "대통령 축출" 주장



26일(현지시간) 니제르 수도 니아메 대통령궁 앞에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억류한 쿠데타 세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이 위협시각에 급히 몸을 피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군부가 26일(현지시간) TV에 등장해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이 축출됐다고 주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니제르 군인 10명은 이날 국영TV에 나와 발표한 성명에서 바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하고 국경 봉쇄를 선언했

DB손해보험

약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 용기를 내게 하고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게 하며
새로운 일상을 열어 주기도 하죠

DB손해보험은 약속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더 든든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약속 잘했다!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95% 급감…반도체 적자 4.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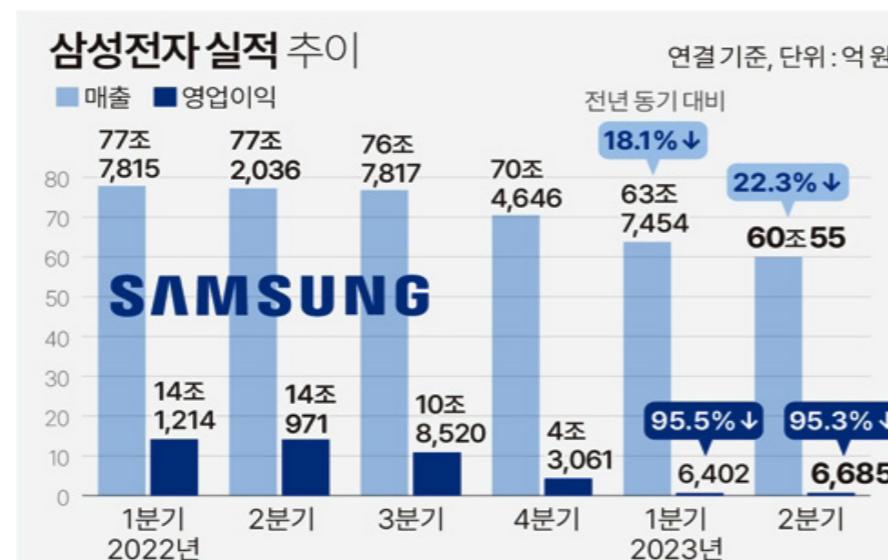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업황 악화로 올해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3천6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하지만 D램 출하량 증가와 가격 하락 폭 축소로 적자 폭을 줄이며 사실상 바다를 확인한 만큼 하반기에는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며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천6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2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3천743억원을 78.6% 웃도는 수준이다. 매출은 60조5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28% 감소했다. 순이익은 1조7천236억원으로 84.47% 줄었다.

이는 지난 7일 공시한 잠정 실적(매출 60조원, 영업이익 6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도체 적자 폭은 축소됐으나,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가 감소하며 모바일 경험(MX) 사업부 이익이 감소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소폭 늘었다. 앞서 삼성전자는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95.5% 급감한 6천402억원의 영



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분기(5천900억원) 이후 14년 만에 최저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4조3천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위기로 2008년 4분기(-6천900억원)와 2009년 1분기(-7천100억원) 연속으로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를 냈던 이후 14년 만에 또다시 2개 분기 연속으로 반도체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반도체 적자 규모만 9조원에 육박한다.

DS 부문 매출은 14조7천300억원이다. 작년 2분기 DS 부문 실적(매출 28조5천억원, 영업이익 9조9천800억원)과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 났고, 영업이익은 14조원 넘게 증발했다. 다만 D램 출하량 증가 등으로 1분기(-4조5천800억원)보다는 적자 폭을 줄였다.

메모리 반도체는 DDR5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중심으로 인공지능(AI)용 수요 강세에 대응해 D램 출하량이 증가하며 전 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 재고는

5월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 LSI는 모바일용 부품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실적 개선이 부진했다.

파운드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모바일 등 주요 응용처 수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리인 가동률이 하락하여 이익이 감소했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2분기 매출 40조2천100억원, 영업이익 3조8천3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감소 추세 속에 플래그십 신제품 출시 효과가 줄면서 프리미엄 비중이 감소했고, 경기 침체로 중저가 시장 회복이 지연돼 전 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시설 투자액은 14조5천억 원으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반도체는 13조5천억원, 디스플레이(SDC)는 6천억원 수준이다.

연구개발비는 7조2천억원으로 1분기

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 최용준 기자



심야시간대 도심·‘교통난’ 신도시서도

DRT 운행한다…국토교통 규제개선 추진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서 운영돼온 수요응답형(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교통수단의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농어촌 지역은 물론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신도시와 귀가 전쟁이 벌어지는 심야시간대 도심에도 DRT 투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RT는 승객 요청에 따라 운행 노선과 시간이 정해지는 교통수단이다.

시내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달리는 반면, DRT는 승객 호출을 받아서 그때그때 최적의 운행 노선을 구성해 운행하는 게 특징이다. 버스 대신 승합차, 미니버스 등 다양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

DRT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농어촌을 기점·종점으로 하거나, 현황조사 결과 대

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교통불편 지역, 규제특례 실증 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불편 지역’을 신도시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역, 심야시간대,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Theme park)에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만m² 이상 규모의 균형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조성이 허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 기간은 가입비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일부 예치 첫 날)에서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전액 예치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 신자호 기자

인천~제주 카페리 내달 화물운송 재개…휴항 석달만에

엔진 부품 결함이 발견된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가 안전 점검을 거쳐 3개월여 만에 운항을 재개한다.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2만7천t급(승객 정원 810명) 카페리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다음 달 9일부터 운항

을 다시 시작한다. 이는 지난 4월 24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카페리의 엔진에서 부품 결함이 발견돼 휴항에 들어간 지 3개월여 만이다.

선사 측은 일단 한 달가량 화물만 신고 운항한 뒤 해운당국으로부터 안전성 최종

확인을 받아 승객 운송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해수청은 카페리가 엔진 이상으로 결항하거나 지역 출항하는 일이 반복되자 운영관리체계 마련 등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 카페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에서 7년 8개월 만인 2021년 12월 취항한 이후 엔진 이상 등으로 모두 6차례 운항 차질을 빚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선사 측이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며 “화물 운반 기간을 거쳐 승객 운송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윤철형 기자

한화에어로 ‘레드백’, 호주 장갑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내 최초 수출형 무기체계…최종 계약시 129대 순차배치



기체계다. 처음부터 수출을 목표로 상대국이 요구하는 사양을 이룬 시일 내에 맞춰 전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출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이는 국내 첫 사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국 정부도 이번 수주전에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의 일환으로 지난해 4~5월 레드백을 시범 운용해 기동성, 운용 편의, 전술 운용 등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국가안보실도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수출을 지원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레드백은 호주 빅토리아주 질링تون에 건설 중인 H-ACE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H-ACE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형 K9 자주포인 헌츠맨 AS9과 탄약운반차인 AS10을 생산하는 곳으로 2024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으로서 우방국의 국가 안보 강화를 통한 세계 평화와 국제 정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로 K-방산의 해외 진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레드백의 수출을 지원해 준 국방부, 육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호주 시장을 시작으로 유럽 등 선진 방산시장 공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송유영 기자

교보증권이 함께합니다

2021 한국거래소 고넥스시장 우수IB 선정

2022 KR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2023 KG제로인 대한민국 펀드아워즈 투자자보호 부문 1위

교보증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습니다.

- 도전과 창의
- + 고객중심
- + 정직과 성실

KYODO 교보증권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14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3호-02637호(2023.07.24 ~ 2026.07.23)

“맛있는 아리수 안심하고 드세요” 서울시 캠페인

서울시는 수돗물 아리수를 더 많은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맛있는 아리수 캠페인’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캠페인은 11월30일까지 진행되며 이날 오후 2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첫 행사가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아리수로 만든 커피·아이스티 등 음료가 무료로 제공되고 아리수와 생수를 비교하는 블라인드테스트가 마련된다. 포토존 사진 촬영, 수돗물 수질검사 시연과 무료 수질검사 신청 등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캠페인 기간 온라인 행사도 이어진다. 아리수를 마시는 사진 또는 영상을 찍은 뒤 개인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아리

수, #맛있는아리수, #나는아리수를마신다)와 함께 인증하면 된다. 시는 인증 게시물을 가장 많이 올리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담은 콘텐츠를 올린 시민을 매월 1명씩 선정해 아이패드를 증정한다. 또 월마다 10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준다.

캠페인 관련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arisu.seoul.go.kr)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seoul_aris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리수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먹는 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황지현 기자

서울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폐지, 학교현장 혼란”…재의 신청

“노조 사무실 30평이하 제한하는 조례안도 기본권 위배…재의해달라”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시의회에 생태전환교육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생태전환교육과 농촌유학 기금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인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생태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폐지된 상태교육조례 대신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학교환경교육지원조례안)도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두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반발에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최유희 시의원(용산2)은 환경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의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농촌



인사말 하는 조희연

유학’ 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5월 30일 폐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기관 법률 자문 결과 서울시의회가 생태교육조례를 개정 한 지 2년 만에 이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

(학교환경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에 부여된 조례 제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 서부권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에 반발하는 중구의원들

가평 돌로 만든 참전비 뉴질랜드·호주에 잇단 건립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비 건립 추진 위원회는 이날 오클랜드 타카푸나 베리스포인트 코리아가든에서 참전비 제막 행사를 열었다.

경기 가평지역에서 생산된 돌로 만든 한국전 참전비가 뉴질랜드와 호주에 잇따라 건립됐다.

25일 가평군에 따르면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비 건립 추진 위원회는 이날 오클랜드 타카푸나 베리스포인트 코리아가든에서 참전비 제막 행사를 열었다.

뉴질랜드에서 가평 돌 참전비 건립은 1992년 7월 오클랜드 도브마이어 로빈슨 파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길 부군수를 비롯한 가평 방문단도 참석해 생존한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교육청 노동 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노조지원 기준 조례안)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기준에는 단체교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했지만, 노조지원기준 조례안은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할 11개 노조 중 10곳이 이사를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데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 김성희 기자

방문단은 출국에 앞서 지난 21일 가평군 북면에 있는 호주·뉴질랜드 참전비에 들러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기도 했다. 호주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은 27일 퍼스시 킹스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다.

호주에는 1999년부터 캔버라 전쟁기념관, 시드니 무어파크, 골드코스트 캐스케이드 공원, 태즈메이니아주 호바트시 한국의 들과 독도 공원, 빅토리아주 마리나부시 등 6곳에 참전비가 건립됐으며 이번 이 7번째다.

/ 민영찬 기자

인천서 ‘교직원 연락처 노출 방지’ 문자 서비스 도입

인천에서 교직원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학부모나 민원인과 연락할 수 있는 문자 서비스가 도입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직원들은 스마트폰이나 PC에 설치된 업무용 메신저를 사용하면 사무실 내선 번호만 드러낸 채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원래는 내선 번호로 문자 발송만 가능해 단순 내용 전달에 그쳤으나 이번 서비스 개편에 따라 양방향 소통이 가능

해졌다.

시교육청은 두 달간 시범 운영을 한 뒤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사용자 의견 반영을 거쳐 오는 10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사무실 번호를 적용해 휴대전화 수신·발신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 전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해 교직원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홍현수 기자

용산구, 두 달 앞당겨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지난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구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울 용산구는 지난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9월경 진행된다.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자 예년보다 두 달 가까이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통장이나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병행하기 위함이다. 특히, 구는 사실조사를 시작하는 이달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으로 운영해 주민들의 익명 신고와 자진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긴급복지 지원, 법률 지원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대면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경기도박물관, 정전 70주년 기념 ‘DMZ 특별전’ 개막



경기도박물관은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두 얼굴의 평화, DMZ’ 특별전을 개막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6·25전쟁의 참상과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 협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비무장지대를 조명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전시는 제1부 ‘끝나지 않은 전쟁’, 제2부 ‘두 얼굴의 DMZ’, 제3부 ‘내일을 위한 기억’, 제4부 ‘DMZ 실태조사 성과 순회 사진전’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각 공간에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DMZ에서 수습한 참전용사들의 유품 등 전시품 600여점과 6·25전쟁 관련 영화·사진집 등 자료를 감상할 수 있다.

/ 채민수 기자

대한민국 노후날씨

언제나 항상 맑음

노후날씨 맑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노인장기요양
당신의 노후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책임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곁에 있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집에서도 충분한 풀봄

- 수시방문 서비스
-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 통합재가서비스 및 재택 의료서비스 확산

함께하는 든든한 풀봄

- 재가 수급자 가족상담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 가족돌봄 휴가 활성화

앞서가는 똑똑한 풀봄

- 풀봄 로봇
- 스마트 케어기술(IOT)

“오염수 방류 반대” 부산 NGO 일본 방문 예고, 해상서는 시위

부산시민 11만명 서명 일본 원자력규제위에 전달 예정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8월 중 해상에 방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국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산지역 63개 시민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는 26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방일 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운동본부 소속의 대표단 7명이 이날 저녁 서울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 단체는 6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부산시민 10만 명‘운동을 벌여 11만 1천678명의 서명을 받았다.

당초 이들은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서명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영사관 측에서 면담과 수령을 거부하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10시 일본 총리 관저



오염수 방류 반대 시민단체 방일 출국 기자회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명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일본 시민단체와 연계해 도쿄전역 앞에서 ‘오염수 방류 항의 퍼포먼스’를 하고 오후 5시부터 일본 단체와 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방류를 반대하는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일본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방문을 추진했다”면서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싸우는 일본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하고 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에서는 지역 수산물 판매자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50여개 단체가 모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수원 공동행동’이 낮 12시부터 팔달구 수원화성 행궁 광장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활동을 했다.

이들은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오염수 투기에 시민들이 쓰러지는 폐포먼스를 했다.

또 행궁 광장에서 장안문까지 행진하며 오염수 투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지역 어민들도 이날 보성군 회전면 울포항 주변에서 어선 200여 척을 동원한 해상시위를 열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벗어 일장기를 건 선박에서 드럼통 120개를 바다에 버리는 폐포먼스를 연출했다.

이후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대형을 한 국내 어선 12척이 드럼통을 회수해 일본에 돌려주는 장면을 만들며, 핵 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할 것을 촉구했다.

/ 곽현민 기자



민주당 거제지역 여성위원회 기자회견

“가진 건 두 쪽뿐” 거제시의원, 주민에 성희롱성 발언 논란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 최근 주민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다.

지역 정치권은 앞서 양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 혐오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물의를 일으켰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거제지역 여성위원회)는 25일 경남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의원은 동부면 주민과 거제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0일 거제시 동부면 한 카페에서 주민총회에 참석한 여성에 “의원님 커피 한 잔 사세요”라고 하자 “돈은 없고 가진 건 이거 두 쪽 뿐이다”고 말하며 양손을 주요 부위 쪽에 갖다 댔다.

이후 다른 여성에 “성희롱 발언이다. 시의원이 그런 말 하면 되느냐”고 따지자 양 의원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양 의원은 이날 동부면에서 열린 주민

총회에 참석한 뒤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 자리에는 마을 이장 등 약 10명이 함께 했다.

거제지역 여성위원회는 “양 의원은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졌으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성인지 감수성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일은 단순히 일회성 실수가 아니다. 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거제시와 주민 자존심에 상처만 입히게 될 뿐이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4월에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 심사 과정에서 “베트남 애들 10명 중의 1명은 뽕(마약 징징)을 한다”,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다”고 말해 외국인 비하 발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지난 14일 양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경고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 의원을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 김민우 기자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자’

2023 울주진하해변축제 28~30일 열려

울산시 울주군 대표 피서지인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28일부터 30일까지 한여름 무더위를 날릴 ‘2023 울주진하해변축제’가 열린다.

울주진하해변축제는 진하해수욕장을 비롯한 울주군 관광지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열리는 진하

대표 축제다.

울산종합일보가 주최·주관하고, 울주군이 후원한다.

올해 축제는 28일 오후 7시 20분부터 7080경춘콘서트 등 추억 파티 공연이 펼쳐진다.

이밖에 이번 축제에서는 공연을 즐기는 동시에 팔각정과 명선도에 조성된 야

축제 개막일 K-POP 댄스팀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DJ 쿨 김성수 등 DJ 아티스트들이 하이라이트 행사에 나서 ‘한여름밤의 디제잉 파티’로 관객들 흥을 돋운다.

이어 29일은 잣브라스유, 피버밴드 등 인디밴드 파티가 진행되며, 30일에는 7080경춘콘서트 등 추억 파티 공연이 펼쳐진다.

이밖에 이번 축제에서는 공연을 즐기는 동시에 팔각정과 명선도에 조성된 야

간 경관조명 산책로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여름은 진하해수욕장에서 울주진하해변축제를 즐기면서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이 아름다운 진하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채수빈 기자

“조개 잡고 놀아볼까”…성산 조개바당 축제 29일 개막

또 지역민들이 성산읍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해녀 노래, 해녀 난타 등의 공연도 즐길 수 있다.

29일엔 꽃모종 나눔 체험을 시작으로 조개 목걸이 만들기, 조개 생활소품 만들기, 조개 마그넷 및 그립톡 만들기 등의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포켓몬고 게임을 통해 포획한 포켓몬과 사진을 찍고, 방문객끼리 포켓몬을 교환할 수 있는 ‘포켓몬 GO, 성산 조개바당 트레이너 센터’도 준비된다.

유아를 위해 미니풀장에서 자석 낚시와 명랑운동회도 열린다.

조개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도 선보이며, 다회용 컵을 지참한 방문객은 커피도 무료로 마실 수 있다.

현동식 성산읍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한 여름 추억을 가득 담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현대차 울산공장 한 부서에서 기능장 5명 탄생 ‘화제’

박세훈·김용섭·이종경 씨

는 위험물관리기능장을, 안순섭 씨는 전기기능장을, 김현수 씨는 판금제관기능장을 따냈다.

이들은 합격 비결로 “업무와 연관성도 있지만,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동료들과 선

의의 경쟁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작업 절차를 연계한 것이 도움이 됐고, 무엇보다 퇴근 후 꾸준히 공부했다”며 “이번 취득이 끝이 아니라 다른 분야 기능장도 도전하며 현장 업무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6월 치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제74회 기능장 시험에서 설비관리 1부에 근무하는 박세훈(42)·김용섭(47)·이종경(44)·안순섭(43)·김현수(34)씨가 기능장을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9월 23일 창원서 연다

경남 창원시는 ‘제3회 창원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오는 9월 23일 성산구 용지문화공원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2021년부터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반려동물 토크콘서트, 반려동물 인식표 만들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사진 활동 등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유기견 입양 캠페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홍보도 이뤄지고, 반려동물 등록 부스도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한다. / 민석호 기자

LG화학

광주시의회 5·18 특위, 국립묘지 참배로 공식 활동 시작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5·18 국립묘지 참배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26일 5·18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정다은 위원장과 특위 소속 시의원 9명은 이날 국립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주요 사적지를 찾아 현장점검을 했다.

한국 현대사와 5·18 서적을 다수 집필한 노영기 조선대 교수가 동행해 역사적 배경과 가치를 해설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지하층 누수가 발생한 505보안부대 등 5·18 사적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존 방안과 향후 활용 계획도 논의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버려지다 시피 한 일부 사적지의 처참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5·18 민주화운동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5·18 현대 전문 수록 건의 활동 강화, 중복되거나 역할이 겹치는 각종 기념사업 정비, 시설과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전국화·세계화 추진 등을 위해 지난 19일 출범했다.

/ 이현우 기자



바르셀로나 혁신지구 벤치마킹

원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본궤도…2단계 용역 나선다

대중교통 개선 위한 1단계 용역 완료…“운영체계·노선개편 필요”

강원 원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본궤도에 올랐다. 26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중교통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개선방안의 큰틀을 잡았다.

시는 다음 단계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노선 개편 방안 수립을 위한 두 번째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이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끄워 본 궤도에 올리는 작업 이었다면 다음 용역은 준공영제를 본격



대중교통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실행하기 위한 두 번째 단추를 끄우는 1단계 용역보고회에서는 원주시 시내 버스가 직면한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 향후 추진 계획을 주로 다뤘다.

특히 시가 지원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 형태인 원주 시내버스는 운수업체의 경영악화와 노선권으로 인한 운송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주로 지적됐다.

결국 시내버스의 운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운영 체계와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선 개편을 시행하려면 준공영제가 해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 운행 안정성과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 체계 및 노선 개편을 통해 시민 편의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김강우 기자

광주시, 바르셀로나 혁신지구서

구도심 재생 해법 모색

광주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혁신지구에서 옛 방직공장터 부지 등 구도심 도시재생의 해법을 모색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 등 대표단은 지난 23~24일 스페인 ‘22@바르셀로나 혁신지구’와 보행자 중심 도로인 ‘립블라스 거리’ 등을 찾아 벤치마킹했다.

대표단은 지방 정부 경제개발기관인 악티비 본부를 방문해 바르셀로나시 고위 관료로부터 현황을 소개받고 곳곳을 둘러봤다.

‘22@혁신지구’는 바르셀로나 지방정부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이곳에는 현재 정보통신(IT), 미디어, 디자인, 에너지, 생명과학, 의료공학 분야 1만1천500개 이상 기업이 입주했다.

/ 박민준 기자

광주시는 옛 전방·일신방지 부지 개발과 광주역 일원에서 추진 중인 1조1천844억 원 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성공 사례를 접목하는 방안을 구상하기로 했다.

방직공장 터는 근대 산업문화 유산, 복합쇼핑몰, 주거단지, 공원 등이 어우러지는 혁신지구로 만들 예정이다.

KTX가 진입하지 않아 쇠퇴한 광주역 주변은 호남권 최대 규모 창업 단지를 조성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에 어떤 가치를 담느냐에 따라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며 “보행자 중심, 녹지 확대 등 인간을 최우선에 둔 공공성 확보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민준 기자

충청권 U대회 조직위 中 방문…청두 U대회 옵저버 프로그램 참여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대표단이 오는 28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막하는 ‘2021 청두 하계U대회’를 시찰하기 위해 26일 출국했다.

충청권 하계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이창섭 부위원장장을 단장으로 조직위와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날 청두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에 참석, 충청권 하계U대회 개최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충청권 대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대표단은 오는 27일부터 청두 하계U대회 옵저버(관찰자) 프

로그램에 참여해 조직위 구조와 대표단 환영식, 개막식, 경기장, 선수촌 등을 차례로 시찰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충청권 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청두 U대회의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개최되는 청두 U대회에는 1만5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18개 종목을 놓고 실력을 겨루게 된다. 2027 충청권 U대회는 2027년 8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150개국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 도원중 기자

충남도,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본격 추진…LH와 협약



전북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잇따라…‘야외활동 시 주의해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양성 환자가 최근 늘고 있다면서 야외활동 시 주의를 당부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모두 5명이며, 이 중 3명은 최근 일주일 새 감염됐다.

보건 당국은 이들 환자를 상대로 역학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SFTS는 야외활동이 잦은 4~11월 주로 발생한다.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치명률이 18.7%에 달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최선이다.

김호주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집에 돌아오면 즉시 샤워나 목욕하고 입었던 옷은 세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승만 기자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당신이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MyShop 파트너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마케팅 통합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건강검진 예약/전용 쇼핑몰 제공

MyCredit 서비스
금융권 최초, 개인사업자 맞춤 신용평가로 소상공인 지원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Lead by \$ 신한카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Cool하게 낮부터 거래하는 미국주식

“밤에만 거래하란 법은 없으니까!”

하나증권 미국주식 주간거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까지 [서머타임 적용]

(서머타임 미적용 시: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까지)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란?

미국주식을 국내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별도의 서비스 신청없이 기존에 거래하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문 가능)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는 국가별, 주문별로 상이하므로(주로 국가 온라인 수수료 : 미국 0.25%, 중국 0.3%),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 바랍니다. ※미국 주식 매매 시 주당 0.003USD, 매도 시 0.0008% 제비용이 부과되며 기타 해외주식 거래 제비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비증권 Change Our Life 해운대

작년 양양에 이은 두 번째 플로깅 캠페인!

CHANGE KB OUR LIFE

PLOGGING
TOGETHER!!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KB증권이 실천합니다!

PSG 음바페, 사우디 알힐랄 문전박대…1조원 제의 거절

1년 뒤 자유계약으로 R마드리드 가려는 속내…속 타는 PSG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의 슈퍼스타 킴리안 음바페(24)가 사우디 아라비아 알힐랄의 '1조원' 제의를 거절했다. 프랑스 스포츠 전문지 레퀴프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알힐랄 관계자들과 만남을 음바페가 거부했다고 27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알힐랄 관계자들은 제니트(러시아)에서 뛰던 브라질 공격수 말콤 영입을 마무리 짓기 위해 파리를 방문했다.

앞서 PSG는 음바페 이적료로 3억 유로(약 4천260억원)를 제시한 알힐랄의 제의를 받아들인 터였다.

이에 마침 파리를 방문하게 된 알힐랄 관계자들이 음바페와 접촉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다.

현지 매체들은 알힐랄이 음바페를 설득하기 위해 연봉과 보너스, 추가 상업적 수익 등을 합쳐 총 7억 유로(약 9천878억 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1조원을 싸들고 오겠다는 알힐랄



음바페

관계자들을 음바페가 호기롭게 '문전박대'한 모양새다.

음바페는 PSG와 계약 만료를 1년 앞둔 지난 6월 '1년 연장 옵션'을 거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음바페는 내년 6월 PSG와 계약을 끝내고 완전히 자유로운 몸으로 기록적 액수의 자유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행선지로

는 그가 선망하는 구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유력하다. 속이 타는 쪽은 PSG다. 음바페가 예약 연장에 응하지 않으면서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쟁길 기회를 날려 보낼 판국이다.

PSG는 음바페의 급여 지급 중단, 시즌 내내 벤치 대기 등의 조치를 고려하는 가운데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에서 음바페를

제외하는 강수를 뒀다.

이런 가운데 음바페에게 10년간 10억 유로(약 1조 4천억원)의 계약을 제안하는 등 '당근'도 던졌다.

나세르 알케이라이피 PSG 회장은 "음바페가 남고 싶다면 새로운 계약에 사인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선수를 공짜로 잃을 마음이 추호도 없다"며 음바페를 자유계약으로 풀어주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음바페는 PSG와 계약 연장 제의에도, 알힐랄 이적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축구 전문 줄리앙 로랑 기자는 BBC를 통해 "음바페는 사우디에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음바페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트로피"라고 말했다.

한편, 말콤은 알힐랄과 4년 계약을 맺었다. 말콤은 지난 5시즌 동안 제니트에서 공식전 109경기 42골을 기록했다.

/ 최준용 기자



한국 남자농구, 평가전서 일본에 76-69 승리

김선형·허훈 등 남자농구

올림픽 사전 예선대회 국가대표 선발

8월 시리아에서 열리는 국제농구연맹(FIBA) 올림픽 사전예선 대회에 출전할 남자농구 국가대표 12명이 선발됐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26일 김선형(SK), 허훈(상무) 등 국가대표 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추일승 감독이 이끄는 남자농구 대표팀은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시리아에서 열리는 FIBA 올림픽 사전예선 대회에 출전한다. FIBA 랭킹 38위인 한국은 대만(69위), 인도(82위), 바레인(84위)과 함께 A조에 편성됐다. B조는 카자흐스탄(65위), 사우디아라비아(68위), 시리아(7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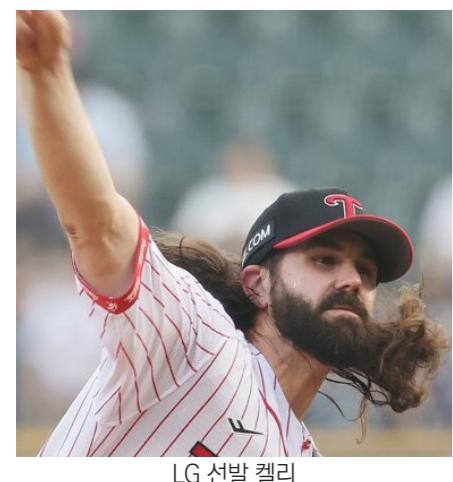
인도네시아(85위)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나라는 다른 대륙 국가들과 올림픽 출전 티켓을 놓고 겨루는 올림픽 최종예선에 나갈 수 있다. 남자농구 대표팀은 27일 충북 진천선수촌에 모여 훈련을 시작한다. 다만 시리아가 여행 금지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선수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 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파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황준호 기자

시즌 최다 5연패 수령에 빠진 프로야구 LG, 끝없는 선발 고민



LG 선발 켈리



위기 넘긴 플랫코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시즌 최다인 5연패 늪에 빠져 선두를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렸다.

LG는 26일 연장 12회에 끝내기 안타를 맞고 kt wiz에 3-4로 졌다. 전반기 막판 연패와 후반기 시작과 함께 당한 3패를 포함해 5경기 연속 패해 2위 SSG 랜더스에 0.5경기 차로 끌기게 됐다.

이번 시즌 길어야 3연패만 겪었던 LG는 연패를 끊어야 할 외국인 원 투 편지 케이시 켈리와 애덤 플랫코가 무너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지난 21일 SSG와 후반기 첫 경기에 선발 등판한 켈리는 5이닝 5실점으로 부진 했다. 나흘 후 연패를 끊어야 한다는 책임을 안고 등판한 플랫코는 6이닝 3실점으

로 제 끈은 했지만, LG 타선을 꼬꽁 묶은 kt 웨스 벤자민에게 판정패했다.

염경엽 LG 감독은 그간 잦은 장맛비로 경기가 취소돼 선수들이 컨디션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것을 무력 아쉬워했다. 투타의 응집력이 떨어져 연패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다. 다만, 장마에 따른 불규칙한 경기 일정은 10개 구단 선수가 공통으로 겪는 난제라는 점에 비춰보면, 최근 LG의 연패는 트윈스의 원천적인 문제에서 바라봐야 한다.

선발 투수가 무너지면 어느 팀이든 어려움을 겪지만, LG의 고충은 더 심하다. 켈리와 플랫코를 빼면 나머지 3~5선발의 위력이 가을 야구 경쟁팀보다 떨어져서다. 임찬규가 올해 부족 성장해 3선발을 끊으나 6월 이후 기세가 한풀 꺾였다. 염 감독이 켈리와 올 시즌을 함께하겠

다며 교체설에 선을 그은 만큼 LG는 켈리, 플랫코 두 외국인 투수 체제로 가을까지 선발진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연패에서 보듯, LG는 켈리와 플랫코 둘 중의 하나라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예상보다 긴 연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이는 정규리그에서뿐만 아니라 포스트 시즌에서도 LG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변수다.

LG가 21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과 29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염원을 풀려면 켈리와 플랫코가 등판하는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 단기전에서 마운드 물량 공세 총력전이 매 경기 펼쳐진다지만, 선발이 제 몫을 못 하면 불펜이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진다.

곧 종반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두 투수에게만 고력을 요구할 순 없다. 타자들도 두 투수가 등판하는 경기에서는 각별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승리에 가까워진다.

/ 이권승 기자

선두 울산, 홍명보 감독과

조기 재계약 급물살 "긍정적 대화"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가 올해 말 계약이 끝나는 홍명보 감독과 조기 재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 구단 고위 관계자는 26일 "보통 시즌이 끝난 뒤 재계약 협상을 했지만 이번에는 최대한 빨리 재계약을 마치려 노력하고 있다"라

며 "홍명보 감독과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계속 홍 감독과 함께 간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

고 있다. 지난 시즌 우승 사령탑인 만큼 연봉 등 재계약 조건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그동안 단기간에 사령탑

을 바꾸면서 팀의 스타일도 바뀌는 부작용이 있었다. 지도자도 장기 플랜을 세워 젊은 선수를 육성하는 게 팀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장기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0년 12월 24일 울산과 3년 계약

을 맺은 홍 감독은 2021년 K리그1 준우승을 지휘하더니 마침내 지난해 17년 만의 K리그 우승이라는 대업을 완수했다.

/ 권현준 기자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화재도립공원

백두대간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는 짜릿함

단산관광모노레일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화에코월드

문화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화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Yes 문경

‘오랫동안 당신을’ 오늘 첫방송…“경쾌한 수사를 기대해달라”

“이 드라마는 무겁지 않으면서 재미있고 경쾌하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장르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26일 오후 9시 첫 방송하는 ENA의 새 드라마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의 한철수 감독은 이날 서울 구로구 더 세인트에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작품의 강점을 이렇게 소개했다.

한 감독은 “살인 사건의 진범을 쫓던 형사가 감춰졌던 가족의 비밀과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발견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추적해가는 추리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 이후에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며 “이 드라마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을 다룬 드라마”라고 덧붙였다.

한 감독은 드라마 ‘마이 리틀 베이비’(2016) ‘우아한 가’(2019) ‘어제인 마이 라이프’(2022) 등을 연출했다. 이 가운데 ‘우아한 가’는 MBN 드라마 중 역대 최고 시청률인 8.5%를 기록했다.



드라마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제작발표회

지은), 차영운(권율)이 연쇄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 드라마다.

진성은 어머니를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할 정도로 거칠없는 형사지만, 친동생이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자 혼란스러운 가운데 진범을 쫓는다. 이 과

정에서 진성은 점차 자기 가족과 관련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진성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영주, 영주의 선배 검사이자 엘리트인 영운, 영운의 친구이자 검찰청 출입 기자인 박기영(이규한)도 사건을 추적하면서 이들의 관계가 복잡하게 뒤얽히게 된다.

배종옥은 영운의 어머니이자 대형 병원의 원장 유정숙을 연기하고, 정상훈은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갑질을 일삼는 치과 의사 배민규 역할을 맡았다.

이번 작품으로 주리극에 처음 도전하는 나인우는 “진성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거칠지만 굉장히 진국인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한 감독은 “나인우는 밝고 장난기가 있는 배우라서 진성이라는 인물과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서 공을 많이 들여 캐스팅 했다”고 전했다.

/ 흥지원 기자



2PM, 6년 만에 완전체 콘서트 ‘잇츠 투피엠’ 개최

그룹 2PM이 6년 만의 단독 콘서트로 뭉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PM의 1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잇츠 투피엠’(It's 2PM)을 9월 9~10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과 10월 7~8일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연다고 27일 밝혔다.

2PM의 단독 콘서트는 한국에서는 6년 만, 일본에서는 7년 만이다.

2017년 멤버들의 입대 전 마지막 서울 콘서트였던 ‘식스나이즈’(6Nights)에서 “완전체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이들은 6년이 지나 데뷔 15주년 기념 콘서트로

팬과 만난다.

9월 10일 공연은 오프라인 무대와 함께 영상 중계 플랫폼 비욘드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로도 감상할 수 있다.

2008년 데뷔한 2PM은 ‘10점 만점에 10점’, ‘하트비트’(Heartbeat), ‘어제인&에게인’(Again&Again) 등의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끈 그룹이다.

2021년 멤버들의 입대로 인한 공백기 를 마치고 5년 만에 신보 ‘머스트’(MUST)를 발매했으며 드라마, 예능 등의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 권도훈 기자

뉴진스 ‘디토’, 스포티파이 4억 스트리밍 돌파

그룹 뉴진스의 ‘디토’(Ditto)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4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어도어가 27일 밝혔다.

‘디토’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기준 4억 73만 4천 219회 재생되며 ‘OMG’에 이어 그룹 통산 두 번째 4억 스트리밍 곡이 됐다. 이는 음원 공개 후 218일 만의 기록이다.

다.

뉴진스의 싱글 앨범 ‘OMG’ 수록곡인 ‘디토’는 지난해 발매 후 한 달여 만(33일)에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으며, 해외 여성 아티스트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일본 오리콘 누적 스트리밍 1억 회를 넘어서기도 했다.

/ 양희진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류승완 감독의 신작 ‘밀수’가 개봉일에 톰 크루즈 주연의 첨보 액션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 파트 원’(미션 임파서블 7)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하며 흥행을 예고했다.

2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밀수’는 개봉일인 전날 31만 8천여명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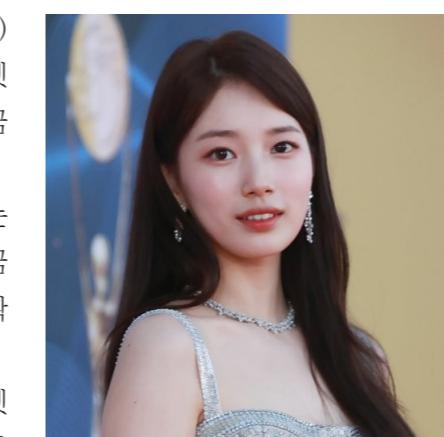
매출액 점유율은 55.8%로, 극장을 찾은 관객의 절반 가량이 이 영화를 관람했다.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켜온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7’은 7만 5천여명(매출액 점유율 13.0%)을 동원하는데 그쳐 2위로 밀려났다.

‘밀수’는 예매율도 이날 오전 기준 34.8%(예매 관객 수는 16만 9천여명)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영화는 1970년대 가상의 바닷가 도시 군천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해녀들의 밀수 범죄를 다룬 작품이다.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고민시, 김종수 등이 주연했다.

‘밀수’를 시작으로 김성훈 감독의 ‘비공식작전’(8월 2일 개봉), 김용화 감독의 ‘더문’(8월 2일),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8월 9일) 등 한국 영화 대작들이 줄줄이 개봉해 이번 여름 극장가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 오규진 기자



정했다.

그러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차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박소희 기자

SUMMER FANTASY

현대백화점이 선보입니다,
국내 첫 디즈니 스토어

올 여름, 현대백화점이 판교점에 국내 첫 디즈니 스토어를 선보입니다.
백설공주부터 엘사까지, 한 세기 동안 모든 세대에 걸쳐 사랑 받아온 캐릭터와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판타지 스튜디오
10m 초대형 “미키 마우스”와
9개의 캐릭터의 세계관으로
구성된 체험형 콘텐츠

무역센터점 정문광장 · 문화홀
8. 1(화) - 8. 20(일)

국내 첫 디즈니 스토어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를
아우르는 다양한 디즈니 캐릭터로
디자인 된 굿즈

판교점 5F, 더현대닷컴 온라인
7. 11(화)

이벤트 & 기프트
디즈니 OST 콘서트,
캐릭터 코스튬 팬이벤트
캡슐 이벤트와 포토부스

현대백화점 전점
8. 1(화) - 8. 24(목)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나물 | 현대그린푸드 | 한섬 | 더한섬닷컴 | 현대리비트 | 현대L&C | 지누스 | 현대렌탈카이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더현대닷컴
온라인 디즈니 스토어

©Dis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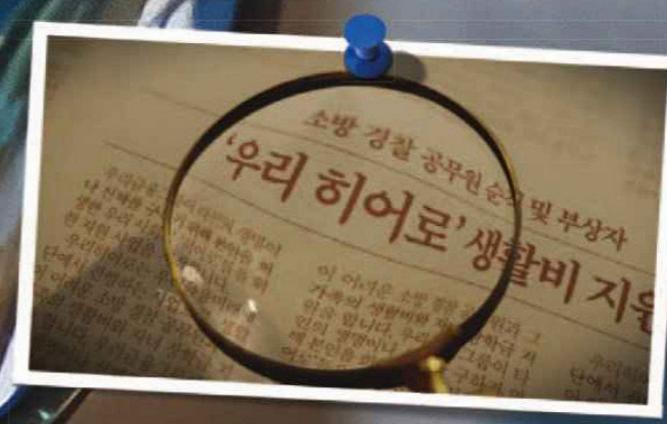
우리금융그룹

우리

동사

기대하다

올해 우리는 대명사가 아닌 동사가 되어봅니다.
기대하세요. 우리 함께 바꿀 우리.

#자립준비청년 지원
응원한다#생명의 숲 조성
지킨다#우리동네 선한가게
띄운다#우리 히어로 지원
기억한다#근대5종 선수 전용태
#e스포츠 국가대표팀
밀어준다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